



소개

더 컬렉터블 VII

홍콩 전시회에서 공개되는
박물관 소장급 타임피스 10 점

주요 정보:

- **더 컬렉터블 첫 전시회:** 홍콩에서 실시간 시연을 통해 특별한 빈티지 타임피스와 현재 컬렉션을 소개하는 첫 번째 전시회
- **박물관 소장급 타임피스:** 10 월 13 일부터 19 일까지 전시 현장 및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한 10 점의 모델로 구성된 캡슐 컬렉션
- **특별한 제품 출시:** 디자인에 영감을 준 주요 빈티지 모델과 함께,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칼리버 101

예거 르쿨트르가 더 컬렉터블의 일곱 번째 캡슐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엄선된 10 점의 박물관 소장급 타임피스는 10 월 13 일 홍콩에서 공개되며, 전 세계 수집가들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캡슐 컬렉션은 시계 애호가 및 수집가들이 모여드는 중심지인 홍콩에서 처음 선보이는, 전시회 형식의 더 컬렉터블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예거 르쿨트르의 풍부한 헤리티지를 체험할 기회이며, ‘듀오플랜,’ ‘리베르소,’ ‘메모박스,’ ‘정확함’이라는 네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타임피스들을 소개합니다. 관람객들은 다음과 같은 풍부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여정. 20 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강력한 빈티지 모델 8 점과 각 모델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8 점 등 총 16 점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 일곱 번째 캡슐 컬렉션에서 구매할 수 있는 10 가지 모델



- 칼리버 101 체인 출시: 전시회에서 듀오플랜 및 리베르소와 함께 공개되며, 눈부시게 빛나는 새로운 주얼리 위치에 영감을 준 요소를 조명합니다.
- 매뉴팩처 아틀리에의 워치메이커가 진행하는 실시간 복원 및 복원이 필요한 공예 기술인 핸드 블루잉과 피벳 폴리싱 시연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

더 컬렉터블은 워치메이킹 황금기에 탄생한 타임피스들을 엄선해 복원하여 선보이는 예거 르쿨트르의 인하우스 프로그램입니다. 약 200 년에 걸친 메종의 창조적 유산을 기념하는 이번 컬렉션은 그 유구한 헤리티지를 조명합니다. 듀오플랜, 리베르소, 지오피직, 퓨처매틱, 메모박스 폴라리스 등 1920 년대 중반부터 1970 년대 초반까지 제작된 17 점의 상징적인 모델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전 세계에 엑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으로 공개되는 이 타임피스들은 수집가들에게 각 타임피스가 지닌 역사와 이야기를 이어갈 특별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헤리티지를 향한 이러한 헌신은 매뉴팩처 내 자체 복원 워크숍이 있기에 가능하며, 이와 같은 전문 시설을 갖춘 브랜드는 업계에서 매우 드뭅니다. 이곳에서 10 명의 마스터 워치메이커는 각각의 타임피스를 정교하게 복원합니다. 오리지널 모델의 특성과 파티나를 보존하는 동시에, 무브먼트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품은 수작업으로 제작하거나 헤리티지 아카이브에 보관된 희소한 부품을 사용합니다. 엄격한 복원과 인증을 거친 타임피스는 발레드주에서 시작된 고유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과거를 존중하며 미래를 그려 나가는 여정

20 세기 중반 워치메이킹의 전환점으로 안내하는 첫 번째 더 컬렉터블 전시회는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황금기와 당시 제작한 타임피스의 변함없는 매력을 조명합니다. 전시회는 그 시대의 다채로운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네 개의 챕터로 구성되며, 예거 르쿨트르에서 소장 중인 프라이빗 헤리티지 컬렉션의 상징적인 타임피스와 현대 모델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듀오플랜: 1925 년에 선보인 듀오플랜은 극도의 소형화와 크로노미터 정밀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결합한 타임피스였습니다. 특히 1929 년에 공개한 칼리버 101 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계식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이며,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 생산 중인 가장 오래된 칼리버입니다.

리베르소: 1931 년 인도에서 폴로를 즐기던 영국 장교들을 위해 탄생한 리베르소는 특허받은 회전형 케이스로 폴로 경기 동안 다이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컬러 다이얼, 스테이브라이트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및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케이스백은 타임피스를 아르데코 디자인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듀오플랜 광고

메모박스: 1950 년에 선보인 메모복스는 손목시계 칼리버에 기계식 알람 기능을 통합한 예거 르쿨트르의 시그니처 컴플리케이션입니다. 핸드 와인딩 모델에서 1957 년 셀프 와인딩 모델을 거쳐 캘린더를 탑재한 칼리버로 점차 발전해 나갔으며, 독창적인 다이얼과 회전형 알람 인디케이터를 갖추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함: 1942 년 트리플 캘린더부터 지오피직과 지오매틱, 높은 진동수를 자랑하는 메모박스 스피드 비트 GT 까지, 예거 르쿨트르는 탁월한 기능, 신뢰도, 정밀성, 탁월한 크로노미터 성능을 바탕으로 정확함을 향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박물관 소장급 타임피스

일곱 번째 캡슐 컬렉션을 위해 선별된 타임피스들은 1920 년대부터 21 세기 초까지,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 이끌어 온 기술적, 미학적 혁신의 깊이와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모든 타임피스는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17 점의 상징적인 모델을 이루는 다양한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예거 르쿨트르와 20 세기 워치메이킹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새롭게 공개된 **칼리버 101 체인**은 주얼리의 우아한 품격과 미니어처 워치메이킹을 결합합니다. 조각 작품과도 같은 18K 핑크 골드(750/1000) 뱅글의 심장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 매뉴얼 와인딩 기계식 칼리버가 자리잡고 있으며,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 디테일의 사선형 밴드와 깊이 있는 블랙 Hyceram®이 번갈아 배치되어 과감하고 모던한 여성 시계를 완성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품에 직접적인 영감을 불어넣은 1955 년 타임피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955 년의 **듀오플랜 체인**은 타임피스가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나 스타일과 세련된 감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당시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73.92g 의 18K 핑크 골드(750/1000)로 정교하게 제작한 시계는 폴리싱 처리된 링크들이 유연하게 이어진 우아한 브레이슬릿과 여성용 시계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오리지널 듀오플랜 무브먼트인 칼리버 403 을 탑재하고 있으며, 가열 과정을 거쳐 핸즈에 색을 입히는 전통적인 시계 제작 방식을 거친 블루 핸즈가 시간을 알려줍니다.



같은 무브먼트를 탑재한 대담한 그래픽 디자인의 1949 년 **듀오플랜 투보가즈** 시크릿 워치는 예거 르쿨트르의 창의적인 다양성과 1940 년대 주얼리 디자인의 독특한 투보가즈 스타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8K 핑크 골드(750/1000) 브레이슬릿과 다이얼 커버는 18K 옐로우 골드(750/1000) 케이스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착용자가 다이얼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커버의 일직선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935 년경 제작된 **싱글 러그 듀오플랜**은 일반적인 두 개의 러그 대신 케이스 양옆에 하나의 러그만을 배치하고, 폴리싱 처리된 둥근 바를 더한 독창적인 스트랩 결합 방식이 특징입니다. 블루 핸즈는 코퍼 톤 다이얼, 18K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 베이지 핸드 스티치로 마무리한 맞춤형 라이트 브라운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과 대비를 이루어 세련된 감각을 선사합니다.





1950 년경에 제작된 **아르데코 스타일의 칼리버 101** 시계는 폭 6.15mm, 두께 5.84mm 에 불과한 케이스 안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10 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블루 패널로 포인트를 준 플래티넘 950 케이스, 12 개의 다이아몬드를 추가로 세팅한 코르도네 브레이슬릿의 2 개 링까지, 총 22 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타임피스를 장식합니다.

바통형 인덱스 대신 아라비아 숫자를, 오리지널 미닛 트랙 대신 절제된 코너 브래킷을 적용한 **1931 년의 리베르소 코르도네**는 리베르소가 초기부터 폭넓은 사용자층을 아우르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선구적인 여성용 모델은 칼리버 T051 를 탑재한 스틸 케이스가 특징입니다. 리베르소 출시 첫해에는 저명한 타반느(Tavannes)에서 칼리버를 공급받아, 르쿨트르 앤 씨(LeCoultre & Cie)에서 직사각형 케이스의 형태에 맞는 독자적인 무브먼트를 개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990 년대 기계식 워치메이킹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자, 예거 르쿨트르는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 백을 통해 정교한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차세대 컴플리케이션 리베르소 칼리버를 선보였습니다. 21 세기를 맞이하여 두 가지 버전의 950 플래티넘 모델을 각각 50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했습니다.



2001 년의 **리베르소 플래티넘 N°1** 은 리베르소 42.2mm 케이스에 맞춰 특별히 맞춤 제작한 칼리버 849R-SQ 를 탑재했습니다. 놀라울 만큼 섬세하고 레이스 같은 스켈레톤 구조를 확장하기 위해, 브릿지와 배럴의 양면 모두를 핸드 인그레이빙 처리하여 독특한 각도에서 메인 스프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에 세팅한 블루 컬러의 사파이어는 블루 핸즈와

까사 파글리아노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블루 코도반 스트랩처럼 푸른 빛을 띠며 플래티넘 950 케이스와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2003 년의 리베르소 플래티넘 N°2 는 간결하고 절제된 미학을 추구합니다. 톤온톤 그레이 다이얼에는 수작업으로 페인팅한 아라비아 숫자가 새겨져 있으며, 시침 및 분침과 같은 축에 위치한 핸즈가 파워 리저브를 표시합니다. 투르비옹은 다이얼 측면의 스몰 세컨즈를 통해 절제된 실루엣을 드러내며, 미리 폴리싱 처리된 브릿지가 회전하는 케이지를 단단히 고정하는 뒷면에서는 한 편의 ‘불꽃놀이’ 같은 화려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정교하게 마감한 구성품 중, 핸드 베벨링 처리한 투르비옹 브릿지는 내부가 비어 있고 블랙 폴리싱 처리되어 1946 년에 선보인 예거 르쿨트르 최초의 투르비옹을 떠올리게 합니다. 블루 핸즈와 까사 파글리아노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블루 코도반 스트랩은 플래티넘 950 케이스 그리고 18K 화이트 골드(950/1000) 버클과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트리플 캘린더 광고

1942 년에 개발한 **트리플 캘린더**(또는 컴플리트 캘린더) 칼리버는 시리즈로 생산된 최초의 컴플리케이션 시계 중 하나입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시계에 사용하거나 다른 주요 시계 브랜드에도 공급하면서, 20 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컴플리케이션이 되었습니다.

1949 년에 제작한 모델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물방울 모양의 러그를 갖춘 18K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를 맞춤 제작했으며, 요일 및 월 디스크에는 포르투갈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스트랩으로는 골드의 따뜻한 색채와



잘 어울리는 버건디 송아지 가죽을 선택했습니다.

1958 년의 퓨처매틱 E502 는 모든 퓨처매틱 모델 중에서도 가장 희소성이 높은 모델입니다.



‘포트홀(Porthole)’이라는 애칭이 주어진 이 타임피스에는 두 개의 작은 창을 통해 파워 리저브와 스몰 세컨즈를 표시합니다. 1951 년 세계 ‘최초의 전자동 손목시계’로 출시된 퓨처매틱은 셀프 와인딩 칼리버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와인딩이 완전히 풀리기 전에 멈추는 무브먼트는 장기간 움직이지 않은 뒤에도 미세한 움직임만으로



다시 작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에너지를 남겨 놓습니다. 스톱 세컨즈 장치는 시간을 다시 설정할 때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37mm 스틸 케이스에는 다크 블루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958 년, **메모박스 파킹**은 예거 르쿨트르가 창립 125 주년을 기념하여 출시한 세 가지 신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14 는 착용자가 사전에 30 분, 60 분, 90 분 또는 120 분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스틸 케이스와 실용적인 컴플리케이션을 갖추어 기능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1950 년대의 워치메이킹 철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mm 케이스에는 다크 블루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 장착되었습니다.



더 컬렉터블 타임피스 10 점은 10 월 13 일부터 jaeger-lecoultre.com 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구매하실 수 있으며, 컬렉션 공개 기간 동안 홍콩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든 타임피스에는 예거 르쿨트르 아카이브의 발췌본 및 더 컬렉터블 북이 포함됩니다.

몰입감 넘치는 경험

방문객들은 실시간 시연과 패널 토론을 통해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의 세계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매뉴팩처 아틀리에 소속의 워치메이커가 복원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글로벌 전문가와 현지 전문가, 그리고 예거 르쿨트르의 제품 및 헤리티지 디렉터인 마티유 소레(Matthieu Sauret)가 한자리에 모이는 두 번의 **패널**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패널에서는 워치메이킹, 수집 가치, 복원 등을 주제로 탁월한 타임피스와 여러 진귀한 제품 이면에 숨겨진 전문 지식과 장인 정신을 집중 조명합니다.

운영 시간 및 입장료:

더 컬렉터블 전시회는 10 월 13 일부터 10 월 19 일까지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채터 하우스(The Chater House) 1 층에서 열립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1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11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대중에게 공개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방문객은 <https://online-booking.jaeger-lecoultre.com/atelier/195> 에서 가이드 투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컬렉터블 타임피스는 10 월 13 일부터 jaeger-lecoultre.com 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구매하실 수 있으며, 전시회 기간 동안 프린스 빌딩 부티크(Prince Building Boutique)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Jaeger-LeCoultre Official Website | Swiss Luxury Watches Since 1833](http://jaeger-lecoultre.com).에서 더 컬렉터블 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 아틀리에에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82 곳의 아틀리에, 108 가지의 공예, 그리고 69 가지 시그니처 기법을 포함한 총 235 가지의 노하우가 한데 모인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미학, 그리고 절제된 세련미가 한데 어우러진 탁월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이 탄생합니다.

jaeger-lecoultre.com